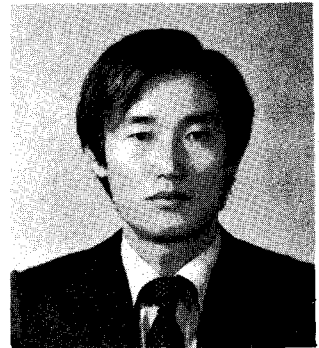


백신수급에 문제점 있다

생산자는 백신유통체계의 정립과 백신의 품질이 향상되어 경쟁과 선택의 기회보장을 원하고 이를 위한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를 바라고 있으며 양축가는 취급에 대한 인식도 높일 것이 절실하다.



신 홍 중
(고창양계대표, 본회 부회장)

백신 수급은 우리 양계업뿐만 아니라 축산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양축가는 누구나 관심을 집중할 수 밖에 없다. 우리 양계인이 양계업을 영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는 대략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것은 품종의 선택, 영양보급, 사양관리, 방역대책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중에서도 대다수의 양계인들이 방역문제 해결에 고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시설의 낙후, 위생관념의 희박, 예방대책에 소홀함으로써 질병에 많은 손실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데에도 원인이 있지만 백신 수급의 문제점이 많기 때문이다.

질병 예방은 축산업 성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왔고 백신만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예방방법이므로 오로지 양축가는 백신에 의존할 수밖에 별 도리가 없는 것이다.

이와같이 중요한 백신 수급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됨으로 해서 양축가는 직접적인 손해

를 감수해야 했고 심한 경우에는 양축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축산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어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계인 입장에서 몇가지 생각해 보기로 하자.

첫째, 백신 유통체계의 정립이다.

백신 수요시장은 좁고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각메이커의 과대경쟁을 배격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에 노력하고 유통상의 철저한 보관관리로 역가를 보존하고 질병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 유통체계가 정립되어야 되겠다. 바로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경약품이 설립되어 2년반 동안 운영되어 왔으나 여러가지 이유로해서 얼마 전 해체되고 말았다. 해체된 이유는 실수요자가 제약회사로 부터 백신을 직접 공급받아 중간 마진을 배제해 안정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고 제약회사의 판매 경쟁으로 좀 더 우수한 품질의 제품이 안정된 수급과정을 통해서 유통되기를 기대하고 수요자로서 제품의 선택권을 가지기

□ 백신수급에 문제있다



위하여 다시 말해서 원하는 제품을 안정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과거의 유통구조를 희망하였기 때문이다.

실수요자인 양축가의 요구인 우수한 제품을 필요한 시기에 구입할 수 있게 유통구조를 정립시켜야 하겠다.

두번째, 백신의 품질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한가지 예로 한마리의 닭이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일생동안 십여가지의 백신을 수십회에 걸쳐 접종하고 있는 실정인데 외국에서는 두세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백신을 혼합하는데 성공, 혼합백신이 개발되어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다한다. 물론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꾸준히 연구 개발 되어야하고 생산업체의 희생적인 공헌없이는 획기적인 여건이 이해가 되지만 축산업 발전이란 차원에서 볼때 언젠가는 극복되어야 하기때문에 관계당국의 강력한 지원대책을 촉구하고 생산업체의 과감한 투자로 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에 노력하여 백신수급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란다.

시장의 한계성 때문에 과잉생산 및 생산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제품을 폐기처분으로 수요자가 요구하는 제품이 풀키되어 필요한 시기에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실이 많았음

을 경험하고는 국내 백신을 되도록 기피하고 외국에서 수입되는 백신에 의존하려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는 점에 관계 당국이나 백신 메이커 관계자는 좀 더 유의해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세번째, 경쟁과 선택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백신이 완벽하고 수급이 원활하여 유통구조가 정립되기까지는 수입백신과 국내 백신을 병행하여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국내 산업의 발전이 우선이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국내 백신에 전적으로 의존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너무도 많다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수입백신을 통제함으로써 일어나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감수하기에는 축산업자의 희생이 너무 크므로 국내 제조백신과 수입백신을 병행공급하여 국내 기술개발에 자극을 주고 메이커에 따라 각기다른 품질과 특성을 적절히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축산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네번째,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과거 생산자는 백신의 질적향상 보다는 판매경쟁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판매업소는 시설이 미비하여 냉장시설마저 허술하여 적정온도(2℃~6℃)를 유지할 수 없어 역가를 저하시키고 취급 또는 운반상 관리가 소홀하여 비위생적인 관리를 유발하고 실수요자의 무관심 속에 안일한 태성으로 일관, 급성전염병에 속수무책이었음에 깊이 반성해야 하겠다.

82년에도 양계의 ILT, 양돈의 돈코레라로 많은 축산인이 많은 손해를 체험하지 않았던가? 관계당국은 생산메이커에 적극적인 자금지원과 시설개수에 성의를 다하고 운반과 보관상 필요한 냉장시설을 위한 자금도 지원하여 생산메이커로 하여금 우수한 상품을 개발하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조성에 노력하고 생산메이커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백신분야의 발전

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또한 유통체계의 정립과 판매업소의 취급상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간접적인 손실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의 위생관리를 계도하여 완벽한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다섯번째, 백신취급은 전문가의 손으로 예방백신에 대한 일반 양계인들의 인식과 측사에 있어서의 위생관리 소홀은 외국에 비하여 상당히 심각하다고 본다. 특히 일반 양계인의 위생상태는 몇군데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태이고 닭거래상인들의 병계유통, 계사의 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관습 등은 조속히 해결되어야하는 선결문제인 것이다. 아무리 품질이 우수한 백신이라 할지라도 적기를 놓치거나 보관상 취급을 부주의하여 역가유지에 실패하였다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해 버렸다면 이는 가치를 상실해, 경제적인 손실만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때문에 백신 유통구조상 수의사나 기타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취급하게 하여 끊임없는 교육과 계몽으로 유통관리상 백신 취급이 어느 한분야도 소홀함이 없어야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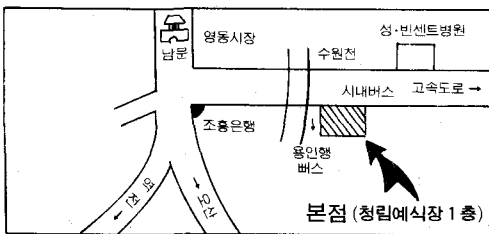
끝으로 양계인을 포함하여 모든 축산인은 적

양계인은 백신메이커에 좋은 품질의 생산을
 요구하고 메이커는 안전하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
 유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축산발전에 모두 기여해야 한다

극적인 자세로 백신메이커에게 좋은 품질의 제품 생산과 콤비백신 등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적정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하고 백신생산업체는 품질향상, 신제품 개발, 유통구조과정까지 연구분석 검토하여 축산인을위한 생산업체가 되어야 할 것이고 관계 당국에서는 백신연구에서부터 실수요자 접촉까지 세심한 배려와 치밀한 계획, 과감한 지원과 통제로 백신유통체계가 확립되도록 노력하여 각양계인의 발전은 물론이요 나아가 축산한국의 기틀이 되도록 기대하면서 신년도에도 양계인들의 번영과 사업의 발전을 기원한다.

수원 가축 약품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750-66
 (청림예식장 1층)
 ☎ (수원 2-2583)



- *축산인의 사랑방*
- *가축질병·시암관리상담*
- *가축약품*
- *축산기구*
- *기타축산관계일체*